

지난 3월 초순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지진해일로 일본열도를 초토화시켰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당시 상황과 피해현장은 참혹했다.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피폭은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말 그대로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학술적으로 지진해일은 해소(海嘯), 지진해파(地震海波, seismic sea wave) 또는 쓰나미(tsunami:津波)라고도 한다. 해저 단층대를 따라 해수가 급격하게 이동할 때 형성되는 긴 파장의 천해파다. 대개 얇은 진원(震源: 깊이 80km 이하)을 가진 진도 6.3 이상의 지진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 외에도 해저 화산 폭발, 단층 운동 같은 급격한 지각변동이나 빙하의 붕괴, 해저에서의 사태에 의한 토사 함몰, 핵폭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와 달리 태풍 또는 저기압에 의해서 생기는 해일을 폭풍해일 또는 저기압해일이라고 한다.

**긴 해안선을 연하고 있는 우리 지역**

지진해일은 해안에 도달하면 그 파고가 수심과 같아지고, 파도의 산이 무너지며 벽 모양이 되어 무섭게 밀려온다. 이때, 파고가 10m이고, 속도가 10m/s이면, 그것이 물체에 충돌할 때의 압력은 5t/m<sup>2</sup>이 된다고 한다. 해일파고가 20m에 육박하는 일본의 예에서도 그 위력을 여실이 보

**이선국 칼럼**

시인, 죽왕면장



**대재앙, 지진해일**

여주고 있다. 지진해일이 내습하기 쉬운 해안에서 진도 3~4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감지될 때는 고지(高地)로 피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지진해일이 내습할 경우 해안지역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통해 지진해일경보가 발령됨으로 유의해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에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긴 해안선을 연하고 있는 우리 지역은 지진해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동안 살면서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재해라는 크고 작은 해일을 여러 차례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재해를 어찌할 수 없는 재앙으로, 또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진 같은 땅의 변화에 매우 예민하여 조선 중기 학자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선생

은 “어떤 간사한 소인배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성종(聖聰)을 현혹시킬 조짐이 있어 지진 같은 변괴가 있는 것이다.” 즉, ‘지진은 천도(天道)가 아닌 지도(地道) 곧 땅의 도리요 그리하여 신도(臣道) 곧 신하의 도리’ 이므로 지진이 “간사한 신하가 임금의 현혹하는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조선 태종 5년에 “강원도 강릉 평창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나자 제사를 지냈다.” 단종 3년에 “강원도의 회양 금성 흡곡 평강에 지진이 일어나니,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서 해고제(解蛟祭)를 지냈다.” 해고제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치유하려고 지내던 제사를 이르는 말이다. 중종 14년에 “태백성(太白星)이 미방(未方)에 나타났다. 회양부에 지진이 있었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나

고 창문과 벽이 흔들렸다.” 성종24년 임금이 의정부에 내린 교지는 “땅이란 만물을 싣고 있으며 지극히 무거우므로, 안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달 9일에 경성(京城)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 안정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따져 보니 잘못된 진실로 나에게 있으므로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역사적으로 한반도에도 지진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지역 역사 속에 있는 만경루와 옛 청간정 등도 해일로 유실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재앙 반면교사로 삼아야**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목도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 열도가 대재앙에 휩싸여 있음에도 그들이 보여준 절제된 질서와 침착함에 세계가 감동했다. 평소 실전 같은 지진해일 훈련으로 그 참화 속에서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없는 마을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의 재앙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수 있는 재앙에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 작가 김용이 지은 소설 ‘영웅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웅문’은 송나라에서 원을 거쳐 명나라로 이어지는 중국의 역사에 광정, 양과, 장무기 등 개성 강한 가상인물들을 등장시켜 선악의 대립 구도 속에서 마침내 선이 승리하는 통쾌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사조영웅전, 신조협려, 의천도룡기 등 3부작으로 구성된 소설 ‘영웅문’을 원작으로 한 영화만도 50여편이 넘으며, 온라인 게임으로도 만들어졌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킨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재미있고 교훈적인 작품이다.

**진정한 영웅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

‘영웅문’의 주제는 진정한 영웅이란 칭기즈칸이나 주원장 등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이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거나 독에 중독돼 사경을 헤매는 등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의롭게 살다간 이름 없는 사람들라는 것이다. 한번 휘두르는 장풍에 수십명이 쓰러지는 등 허황되고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도 바로 이런 주제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죽왕면 오봉1리에 본적을 둔 필자는 그동안 속초와 춘천에서 생활하다 지난 1월 초부터 간성읍으로 주소를 옮겨 살고 있

**데스크 칼럼**

최광호 편집국장



**소설가의 마을**

다. 영웅문의 주인공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다. 인간의 미래를 쉽게 장담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남은 생애를 이곳에서 보내게 될 것 같다.

고성군은 화진포 일대의 고인돌과 동호리의 신석기 유적에서 보여지듯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던 역사 깊은 지역이다. 또 비록 지금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북에 속해 있지만, 금강산이라는 세계적인 명산과 청간정 등 시인묵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한 전통 있는 고장이다.

그런데 약 100여일간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고장에 걸맞지 않게 향간에 떠도는 ‘소문’이 많아, 지역발전엔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소문은 우리가 흔히 ‘소설을 쓴다’고 할 때처럼 거의 소설에 가깝다. 그

래서 고성지역을 ‘소설가의 마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이들 소설가들은 ‘하인 뎀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이 무색하게 나무를 때지 않아도 연기가 나게 만드는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가졌다.

한 남자가 지나가는 한 여자가 떨어뜨린 머리핀을 주워서 전해줬다. 다음날 소설가는 아들이 불륜관계였으며 사실은 고등학교 생인 딸을 뒀다는 소설을 발표한다. 이어 다른 소설가는 사실 그 학생은 모 고등학교 2학년 3반에 다니며, 학교 성적이 10위권 안에 들고, 머리가 단발머리라는 데까지 밀고 나간다.

이어 또다른 소설가는 그 학생의 키가 160cm 정도이며, 눈에 쌍꺼풀이 졌으며, 얼굴이 창백하다는 내용까지 삽입한다. 그리고 마지막 소설가는 최초 머리핀을 주워서 전해준 남자가 알고 보니 자신의 딸인

그 학생과도 불륜관계를 맺고 있더라고 쓴다.

이런 소설들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불쾌감을 준다. 또 오랫동안 수행을 쌓아온 사람조차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며,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묘사하는 등 선악을 구별하기 어렵게 한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소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작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쓴 소설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과정에서 눈점이 변해 전혀 다른 이야기로 회자될 경우, 자신이 초안을 잡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시(예술)는 절대 진리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이데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시인추방론’을 역설했다.

반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예술)가 모방이기는 하지만 ‘카타르시스’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므로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고성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소설’을 접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진다.